

# 유병언 일가 정조준... 해운업계 비리 여부 등 전방위 수사

## 선박직 직원·구조변경 업체 집중 조사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급격한 변칙·선박 구조 변경·선박의 평형 문제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선박직 선원과 선박 구조변경 업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사실상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부산지검도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비리를 캐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전남지역 구명벌 안전점검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려 있던 구명벌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내려진 구명벌(구명뗏목)은 전체 46개 중 겨우 2개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9일 수사본부는 세월호 증축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본부는 변칙의 원인이 선박 구조변경 때문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또 구명벌이 제때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

- 유병언 전 세모 회장  
법정관리 세모 조선사업부  
하청업체들 내세워 매입  
(주)천해지 설립한 뒤  
지분 대부분 넘어간 정황 포착
- 선박직 직원·구조변경 업체  
기관사 보좌 '조기수' 등 체포  
구명벌 점검업체 압수수색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유착 여부도 중점 수사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던 것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안전점검 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직간접의 모든 분야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지검·부산지검 등도 동원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중 14개를 핵심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의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포함해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또 지난 2005년 법정관리 상태였던 (주)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세모의 하청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입한 뒤 (주)천해지를 설립했으며 이들의 지분 대부분이 2008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유 전 회장 일가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세모 측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6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면제받은 뒤 하청업체들을 내세워 회사를 매입하고 시차를 두고 경영권을 다시 장악한 흔적을 발견, 관련 회사들의 회령 또는 배임 혐의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인천지검은 수사과정에서 청해진 관계사 임직원과 유 전 회장 측근 등의 비자금 의심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도 선박의 안전점검과 운항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선급(KR)과 선사 등 연안해운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한국선급의 주요 임원이 해양수산부 출신인 것에 주목하고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업계의 선박관리와 운항부터 훈련 등에 관한 문제점은 물론, 이를 감독하는 관청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 승무원들 잇단 사법처리

### 선박직 15명 중 11명 조사 7명 구속...4명 조사 방침 전원 사법처리 가능성도

침몰 과정에서 승객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세월호 탑승 승무원들의 사법 처리가 잇따르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조기수' 이모(56)·박모(57)씨, 2등 기관사 이모(여·27), 1등 기관사 손모(59·기관장)씨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담당한다. 손씨의 경우 지난 21일 자살 소동을 벌인 바 있다.

침몰 사고 이후 구조된 세월호 전체 선박직 직원 15명 중 11명이 수사본부 수사를 받게 된 상태이며, 이미 7명은 구속됐다.

이준석(69·선장)씨·박모(여·25·3등 항해사)씨·조모(55·조타수)씨 등 3명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또 강모(42·1등 항해사)씨·신모(34·1등 항해사)씨·김모(47·2등 항해사)씨·박모(54·기관장)씨 등 4명은 지난 22일 구속됐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치사, 과실선박 매몰 혐의와 특별법인 선원법 및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들의 경우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본부는 또 나머지 4명의 선박직 직원에 대해서도 혐의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전원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세월호 전체 승무원 24명 중 6명(일반직)을 제외한 18명이 구조됐고 이중 15명이 선박직 직원이다. /이종형기자golee@



유병언씨 자택 압수 수색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관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에서 압수 물품을 박스에 담아 자택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민사판결로 본 유병언씨는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씨가 스스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 소송 경과를 보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와 유씨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정동섭(67) 전 참례신학대 교수, 심재원(70)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내고 이들이 자신의 고단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구원파를 왜 이

## 복음침례회·오대양 사건 관련 소송서 잇따라 패소

단이라 하는가'라는 책을 썼다가 소송을 당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책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서도 "정 전 교수로서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2007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대검

총수부장을 지낸 심재원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오대양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 수사 회고담을 2012년 초 한 월간지에 게재했다가 유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심 변호사의 회고담을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심 변호사 상대 손해소송에서 진 유씨는 항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으로, 다음달 28일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

## 경찰 '세월호 침몰, 제2의 5·18 폭동' 망언 지만원씨 내사 착수



○~경찰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시체 장사'에 비유하며 "대통령은 제 2의 5·18 폭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막말을 한 지만원(72)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 스태프클럽'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

야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들어갔다고 발표.

○~경찰은 "안산과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밴드에서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확확할 '제2의 5·18 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쏘야 하는 것"이라는 등 글을 올린 지씨에 대해 모욕죄 등의 혐의를 검토중.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NAVER 검색엔진에 단비플라워를 추천받았어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 (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궁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